기보, 부산 소외계층 어르신에 설 특식 대접

기술보증기금이 설 명절을 맞아 11일 부산 남구 감만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기보사랑봉사단 소속 임직원 16명은 이날 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소외계층 어르신 100여 명에게 설맞이 특식을 대접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지역 농수산물로 구성된 나눔꾸러미를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기보

아모레퍼시픽 봉사단 '앞나눔즈' 4기 활동 마무리

아모레퍼시픽은 사내 자율봉사단 '앞나눔즈'가 4기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앞나눔즈는 자발적으로 앞장서 나눔을 펼치는 아모레퍼시픽 구성원의 모임이다. 앞나눔즈 4기에는 160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약 5개월에 걸쳐 13개 모둠 활동을 펼쳤다. /아모레퍼시픽

콜마그룹 신입사원, 여주 취약계층에 연탄배달

콜마그룹은 지난 6일 여주시장애인복지관과 협력해 경기 여주의 현암동 일대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신입사원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한국콜마, HK이노엔, 콜마비앤에이치 등 콜마그룹 관계사 신입사원 100여 명이 참여했다. /콜마그룹

엄기천 포스코퓨처엠 사장 배터리산업협회장으로 취임

엄기천 포스코퓨처엠 사장(사진)이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제9대 협회장으로 취임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2026년 협회 이사회·총회'를 열고 엄 사장을 제9대 협회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엄 신임 회장은 향후 3년간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을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협회를 이끌게 된다. /원관희 기자 wkh@

태광산업 설 납품대금 현금 조기지급

태광그룹 섬유·석유화학 계열사인 태광산업은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 전후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조기 집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46개 협력사가 예정된 지급일보다 열흘 이상 빠르게 대금을 일괄 지급받았다. 조기지급 대상에는 최근 업황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섬유공업사를 포함한 석유·화학 관련 협력사들이 포함됐다. /양성운 기자 ysw@

LG전자, 신소재 '마린 글라스'로 순천만 생태계 복원

순천시-서울대 블루카본사업단과 갯벌 1500㎡ 면적에 염생식물 생장 탄소 흡수효율 검증 실증사업 진행

LG전자가 순천시, 서울대학교 블루카본사업단과 손잡고 해조류와 염생식물 등 해양 생물의 생장을 촉진하는 신소재 '마린 글라스'의 효과를 검증하며 블루카본 흡수원 확대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

LG전자는 전남 순천시청에서 순천시, 서울대학교 블루카본사업단과 '블루카본 생태계 조성 및 탄소중립 공동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순천만 갯벌에 '마린 글라스'를 적용하는 모습 예시. /LG전자

이번 협약에 따라 LG전자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순천만 갯벌 약 1500㎡ 면적에 마린 글라스를 적용해 염생식물의 생장과 탄소 흡수 효율을 검증하는 실증 사업을 진행한다.

마린 글라스는 물과 접촉하면 미네랄 이온으로 변하는 기능성 유리 소재로, 해조류와 염생식물의 생장에 필요한 미네랄을 일정한 양과 속도로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LG전자는 사용 목적에 맞춰 미네랄 성분이 정밀하게 용해되도록 제어하는 독자 기술을 확보했다.

특히 마린 글라스는 종류와 양, 형태까지 원하는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어 활용성이 높다. 예를 들어, 유속이 빠른 지역에서는 미네랄 성분이 쉽게 흩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고 무거운 구(球) 형태의 비즈나 납작한 집 형태로 제작할 수 있다.

LG전자와 순천시, 서울대학교 블루카본사업단은 이번 협력을 통해 블루카본 생태계 조성과 보존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은 물론, 순천만 갯벌 내 염생식물 군락지 조성과 장기적인 생태계 관리 모델 구축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말 부산광역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낙동강 하구 염습지에 마린 글라스를 적용해 염생식물의 생장과 탄소 흡수 효율을 검증하는 실증 사업을 추진해왔다.

LG전자 김영석 HS기능성소재사업실장은 "환경 보존과 탄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신소재 사업을 발전시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롯데百, 설명절 보냉가방 회수 행사

정육, 곶감, 선어 선물세트 대상 1개당 엘포인트 3000점 지급

롯데백화점이 설 명절 이후 버려지는 포장재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보냉 가방 회수 이벤트'를 진행하며 자원 순환에 앞장선다.

이번 행사는 오는 19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전국 롯데백화점 사은행사장에서 진행된다. 회수 대상은 정육, 곶감, 선어 선물세트 전용 보냉 가방이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사은행사장에 비치된 QR코드를 통해 쿠폰을 발급받은 뒤 가방을 반납하면 된다. 가방 1개당 엘포인트(L.POINT) 3000점을 지급하며, 1인당 최대 5개까지 반납 가능하다.

롯데백화점은 2022년 추석, 업계 최초로 명절 보냉 가방 회수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고객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며 지난 추석까지 누적 회수량 9만 개를 돌파하는 등 대표적인 친환경 캠페인으로 자리 잡았다.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 1층 사은행사장에서 보랭가방을 반납하는 모습. /롯데백화점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상생 경영도 실천했다. 롯데백화점은 명절 전 비용 지출이 늘어나는 중소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300여 개 파트너사에 납품 대금 약 4800억 원을 조기 지급했다.

롯데백화점 이성현 커뮤니케이션부문장은 "보냉 가방 회수 이벤트는 고객과 백화점이 함께 탄소 배출을 줄여 나가는 실질적인 ESG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자원 순환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씨티은행,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

유명순 은행장, 릴레이 캠페인 참여

한국씨티은행은 유명순 한국씨티은행 은행장이 '청소년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 불법 사이버도박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서울경찰청 주관으로 진행되는 캠페인이다. 금융권을 포함해 각계 주요 인사들이 릴레이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 청소년들이 온라인 환경에서 불법 도박과 유사 금융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예방 중심 금융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커지고 있다. 특히 불법 도박을 접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며,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부터 불법 도박에 노출되는 사례까지 보고되는 상황이다.

유명순 한국씨티은행 은행장이 '청소년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한국씨티은행

유명순 은행장은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의 지목으로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를 지목하며 청소년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 확산을 당부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中企공제기금 가입자 '설 명절 자금' 대출

중기중앙회, 납부금 3배까지 제공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자에게 '설 명절 자금'을 지원한다.

중기중앙회는 공제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납부금의 최대 3배까지 설 명절 자금 대출을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제기금 가입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낸 부금에 따라 최대 3배(2000만원 한도)까지 평균 5.6% 금리로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이차보전대출이라면 금리가 최대 2% 추가 인하된다.

2000만원을 초과하는 대출은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납부금의 1.5~3배로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또 개인사업자는 대출서류 제출 후 비대면 약정으로 신용 대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 이창호 공제사업단장은 "내수부진 등으로 힘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부족한 명절 자금을 공제기금을 통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며 "가입 즉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된 공제기금은 가입자의 부금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공제제도다. ▲운영자금대출(명절자금, 재해지원자금, 시설자금 등) ▲부동산담보대출 ▲어음수표대출 ▲부도어음대출에 활용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GS글로벌, 임직원과 '헌혈 캠페인' 참여

겨울철 혈액 수급 부족 지원

GS글로벌이 혈액 수급난 해소와 생명 나눔 문화 확산에 나섰다.

GS글로벌은 11일 서울 역삼동 GS타워 본사에서 '생명을 나누는 헌혈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 혈액 수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사 앞에 마련된 헌혈버스에는 김성원 GS글로벌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여했다. 헌혈에 참여한 임직원에게는 헌혈증서와 함께 커피 쿠폰, 두쫀쿠(두바이쫀득쿠키) 등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됐다.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생명 나눔 활동이다. 헌혈 1회 시, 혈액 성분 분리를 통해 최대 3명의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

GS글로벌 관계자는 "헌혈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기부"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생명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솔 인턴기자 mnskim@

인사

◆외교부 ◇공관장 ▲주콜롬비아대사 최현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장급 전보 ▲기획조정관 서정아

부음

▲이경숙씨 별세, 백종원(더본코리아 대표)씨 모친상=10일, 서울성모장례식장 31호실, 발인=13일 오전 8시. 02-2258-5979